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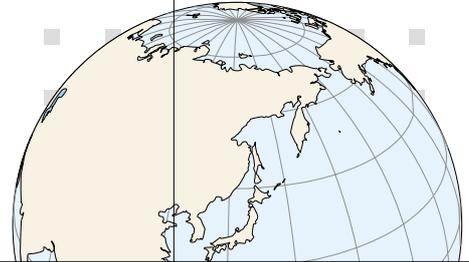


이화소식

NEWS^{HA}

2004년 1월 31일 발행 제62호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정하영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길 26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www.ewha.ac.kr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7장 33절)

본교, 2만평 규모의 ‘이화캠퍼스센터’ 신축 ‘120년 역사와 21세기 비전이 함께 숨쉬는 열린 공간’

본교가 120년 전통과 21세기 비전이 함께 어우러진 기념비적 건축물을 신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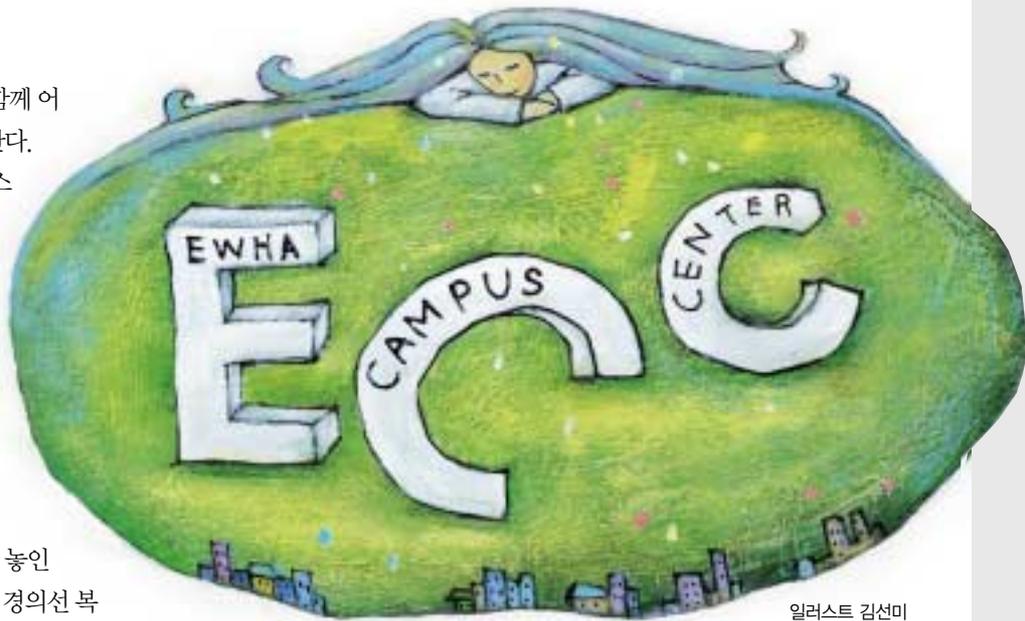
총 2만평 규모로 국내 대학 최대의 지하캠퍼스가 될 ‘이화캠퍼스센터’ (Ewha Campus Center: 약칭 ECC)를 건설하는 것.

본교는 오는 6월부터 3년여에 걸쳐 정문앞 광장과 운동장 지하에 각각 3층, 5층 규모의 지하 건축물을 신축,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본교의 21세기 비전에 걸맞는 최상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경의선이 전철화되면서 경의선 철로 위에 놓인 이화교가 철거되고, 복개공사가 진행되는 등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이화 캠퍼스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ECC 프로젝트는 이같은 변화를 적극 수용, 향후 예상되는 5만여명의 신규 교육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이화의 유서깊은 캠퍼스 환경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최선의 해법으로 선택됐다.

새로 조성되는 ECC 중 1만2천평은 24시간 자유열람실, 최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 교육시설과 복합상영관·갤러리·서점·피트니스 센터 등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선 교육문화 공간으로, 8천평은 8백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꾸며진다.

본교는 ECC를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서는 세계 수준의 건축물로 만들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번은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명



일러스트 김선미

품 건축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 설계를 국제현상 공모중이며 현재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3개 팀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파리 미테랑 국립도서관 설계를 맡았던 도미니크 페로, 이라크 태생의 여성건축가로서 해체주의 건축으로 유명한 자하 하디드,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 국제현상에 당선됐던 FOA(파시드 무사비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가 그들이다.

본교는 올 2월초에 이들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6월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완공은 광장 부분이 창립 120주년을 맞는 해인 2006년 여름, 운동장 부분은 2007년 12월로 잡고 있다.

신인령 총장 신년 메시지



“뜨거운 이화사랑으로
120주년 향한 도약 앞당기길”

자랑스런 이화인, 존경하는 교직원, 사랑하는 동문,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화를 도와 주시는 ‘이화의 친구’ 여러분. 모두 새해 설계에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지난 한해를 잠시 돌이켜 보면 이화는 어느 때 못지 않게 이화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교수님들의 빛나는 연구업적과 졸업생, 재학생들의 탁월한 성취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고, 사법·행정·외무고시와 언론계 및 공인회계사시험 등 전문직 진출에서 이화인들이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화에서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이화리더십개발원’을 만들었고 또한 이화 재학생들을 더 유능한 일꾼으로 단련시키며 이화인의 평생 커리어를 관리해 주기 위한 기구로 경력개발센터(CDC)를 열었습니다.

캠퍼스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건축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화 캠퍼스센터(ECC) 건설은 현재 국제현상공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사범대학 증축, 이화·신세계관 신축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 증축 결정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발전을 통해 참된 교육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이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화캠퍼스센터의 건설은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 창립 120주년을 앞둔 이화가 캠퍼스 환경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6년에 광장 부분이, 2007년에 운동장 부분이 완공되면 우리는 이화인들이 24시간 공부하고, 토론하며, 운동하고,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활짝 열린 ‘교류의 마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직원과 동문, 그리고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의 친구’ 여러분도 이 열린 공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대역사를 위해 모든 이화식구들이 언제나처럼 이화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에 이화는 또 하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비유하는 이른바 신춘리그의 탄생입니다. 이웃 서강대·연세대와 함께 하는 학부간 학점교류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초유의 실험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화는 이번 교류를 통해 우리가 쌓아온 학문적 강점과 함께 특히 미래 사회 최대의 화두인 여성주의적 가치를 두 대학과 공유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올해엔 저 자신 이화식구들과 더 자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화소식지가 년4회 발행에서 8~10회 발행으로 대폭 늘어나며, 이메일 뉴스레터로도 만들어져 더 많은 이화 식구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이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이화가 되는 데에는 내부의 비전 공유와 결속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 서로 건투를 빕시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령**



20주간 진행된 ISP/BPR 프로젝트 완료

본교의 경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보기술 활용 전략 계획인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지난해 12월9일(화)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완료 보고회(사진)를 가졌다.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20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정보통신처(처장 채기준 교수) 주



관으로 LG CNS가 맡아 수행했다. 보고회에서는 교내 각 부서 처장단, 직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참여했던 현황분석 워크숍 및 선진 대학 벤치마킹 등의 결과 설명을 비롯, 개선 모델 설계 및 통합 이행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본교는 교내 업무 시스템의 재정립 및 효율적 처리를 기대하는 한편,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총장 메시지

한국경제 이끌어갈 여성 경영인력의 산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여자대학인 '이화'에 우리나라 대표 유통업체인 (주)신세계가 건립, 기증하는 '이화·신세계관'이 들어선다.

지난해 12월18일(목) '이화·신세계관' 신축예정지인 본교 구 사회복지관 터에서 열린 기공식(사진 위)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신인령 총장과 구학서 (주)신세계 사장, 이정상 (주)신세계 경영지원실장, 노태욱 신세계건설(주) 사장 등 많은 교내의 인사들이 모여 최첨단 경영관인 '이화·신세계관'의 기공을 축하했다.

신인령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화·신세계관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여성 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특히 이러한 이화의 꿈과 비전을 담은 공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구학서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화·신세계관'은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15,640㎡(4,730평), 건축면적 1,708㎡(516평) 규모로, (주)신세계가 건축비 1백50여억원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주)신세계가 직접 선정한 (주)건축환경연구



이화·신세계관 조감도



소의 김 원 소장이 설계를, 신세계 건설(주)이 직접 시공을 맡아 이화·신세계관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영대학 전용건물로 우리나라 여성 경영전문인력의 산실이 될 '이화·신세계관'은 무선 랜과 인터넷정보통신망이 갖추어져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한 강의실과 강당,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대학원 연구실 및 복지시설을 갖춘 인텔리전스 빌딩으로 2006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경영대학은 1964년 상과로 시작한 이래 40여년 만에 최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을 독자 건물로 갖추으로써 한층 높은 수준의 경영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연세대·서강대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간 학점교류·시설물 개방 등 추진

한국판 아이비리그... '신춘리그' 꿈꾼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인 본교와 연세대, 서강대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간 학점교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6일(금) 본교 신인령 총장, 연세대 김우식 총장, 서강대 류장선 총장은 학부간 학점교류와 시설물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대학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3개 대학이 교육·연구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특성화를 강화해 사실상 '단일 캠퍼스'인 'YES(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의 영문머리글자 합성어)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 신춘의 명문사학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신춘리그'를 결성한다"며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본교와 연세대, 서강대 등 3개 대학 기획처장은 지난해 12월29일(월) 본교 본관 101호 회의실에서 공동기

자회견을 갖고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연구교육 역량을 상호보완하고 교류협력을 극대화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 대학간 긴밀한 인적·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연구 분야에서 공동의 발전기회로 활용하고,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분야를 특성화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교류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는 신인령 총장, 연세대 김우식 총장, 서강대 류장선 총장 (왼쪽부터).

협약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 학부생은 2004학년도부터 자기 대학에서 개설되지 않은 전공과목을, 2005학년도부터는 전 교양과목을, 2006학년도부터는 모든 개설과목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대학간 교류의 범위도 2004년 1학기 학부간 학점교류를 시작으로 교육, 연구, 행정, 경영 등 교류협력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본교 정하영 기획처장은 "교류협력 분야를 학문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도서관, 실험실 등 시설물 상호개방과 실험기자재 및 도서 공동구매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 대학은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밖에 3개대 연합 홈페이지 구축,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절차를 총괄하게 될 공동실무위원회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2004년은 대학종합평가의 해!

이화인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돼

대학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한국 교육사상 처음으로 대학종합평가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본교가 올해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를 받는다.

지난 1995년 실시된 제1주기 평가에서 본교는 이미 전국 종합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아 '명문 이화'의 명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경영(95년), 법학(2000년), 사회복지(2001년), 교양교육(2002년) 등 학문분야별 평가를 통해 최우수 인정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외부기관의 평가와는 별도로 본교는 그동안 자체 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발전방향을 점검하여 왔지만, 이번 2주기 평가를 준비하는 평가준비팀의 각오는 남다르다. 본교가 9년 만에 받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종합평가인만큼 이번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현재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본교의 평가 준비는 평가를 직접 준비하는 기획처(처장 정하영 교수)의 지휘 아래 크게 자체평가위원회(기획위원회, 연구위원회)와 평가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의로 나누어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부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처장단이 핵심이 되는 기획위원들과 총 29명의 각 분야 교수들이 팀을 이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

하며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제1주기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보화, 국제화, 고객화, 학습화 체제 등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평가 준비팀도 본교의 경영전략 및 운영, 특성화, 발전비전과 전략, 교육목적, 교육과정 및 방법, 연구실적, 학생·교수·직원의 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교육여건 및 지원 체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방학기간을 활용,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강 후에는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 등 각종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처 평가담당 권은미 부처장(불문)은 "충실한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이 필수적"이라며 평가 준비팀의 다소 번거로운 요청에도 이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교의 대학종합평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는 올 7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현장방문 평가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교내소식

2004년도 바뀌는 규칙들...

이것만은 알아두자

인문·외국어문학부와 영어영문학부를 통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인문과학대학의 인문·외국어문학부와 영어영문학부가 2004학년도부터는 인문과학부로 통합된다.

디자인대학원 교육 강화

(대학원 학칙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7조)

석사학위과정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는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 기존의 24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동 과정 수료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도 18학점에서 24학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에 따라 디자인대학원 재학생의 한 학기 당 취득학점도 9학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정보보호학'이 연계전공으로 신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0조)

관련있는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또는 2개 이상의 학부를 연계하여 자신의 관심분야를 맞춤형으로 이수할 수 있는 연계전공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2004학년도에는 '정보보호학'이 연계전공으로 신설되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필요한 인재를 능동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임상치의학대학원에 임상소아치과학전공, 임상치주과학전공 신설

(대학원 학칙 제3조·제4조 관련 별표1)

2003학년도에 개원한 임상치의학대학원에 신설 전공으로 임상소아치과학전공과 임상치주과학전공이 설치되었다

총장직속기관으로 감사실 신설

(직책 제3조 제7호)

총장직속기관으로 '감사실'이 신설된다. 본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감사실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이화의 첨단 지식 자산으로 국가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교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립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월27일(화), 설립기념식 및 심포지움(오후2시30분·이화 포스코관 B153호)과 현판식(오후4시40분·본관 2층)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산학일체형 대학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김영기 조형예술대학장), '식품사업에서의 산학협력 모델 제안' (웅진식품 조운호사장), '신 산학협력 추진 과제와 추진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산학협력과 김관복과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교의 산학협력단 설립은 전국 대학중 8번째이며 서울 소재 대학으로는 한양대와 서울산업대에 이어 3번째, 여자대학으로는 최초이다. 본교 산학협력단 설립의 배경에 대해 산학협력단장 이준승 교수(생명과학)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후발 산업화 국가 및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오히려 미진한 것이 현실이죠.”

미국 등의 기업과 대학이 유연한 제도와 환경속에서 자발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대학과 기업이 효율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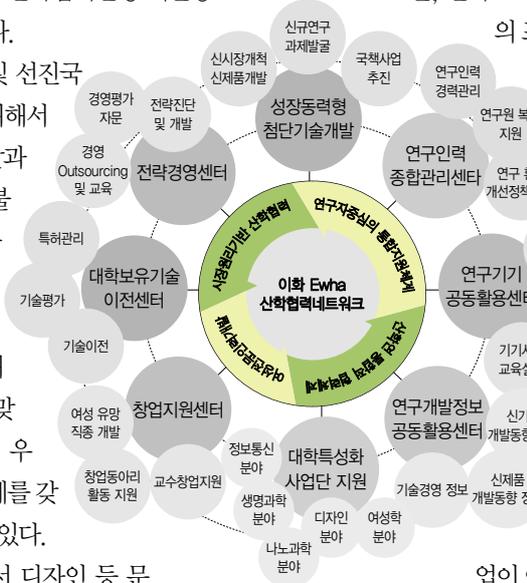
“이화는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디자인 등 문



산학협력단 현판식

화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 신기술 및 제품을 우리의 첨단지식을 통해 개발하고, 우리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하면서 첨단 연구의 활성화를 이루는, 산학 모두의 윈윈 게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준승단장의 포부다.

이를 위해 본교 산학협력단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이화 산학협력 네트워크'라는 파트너십을 구축,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고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파트너십에 동의한 기업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주)포스코, CJ주식회사, CJ홈쇼핑, 웅진그룹, 대상(주), (주)LG생활건강, (주)태평양, 한국도자기, 한국화장품, 현대건설, 샘표식품, 도산중공업, (주)오리온, (주)정식품, SK주식회사를 비롯, 한국을 대표하는 50여개 기업이 이화의 산학협력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준승 단장과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산학협력단 이모저모

Q 이화의 역량으로 볼 때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낼 분야는?

A 우선 디자인 분야를 꼽을 수 있다. 본교는 최근 디자인 관련 연구소들을 통합, 디자인코리아연구원을 발족한 바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파트너 기업들의 디자인 자문 및 제품 개발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공학 등의 분야 역시 의학 및 식품산업과 상당한 수준의 산학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를 아우르는 이화의 교육학 분야도 교육관련 기업들과 심



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통신, 건축, 환경학 등의 공학 분야 산학협력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Q 산학협력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

A 교내 구성원들이 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

층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평생교육원, 이화리더십개발원 등 일반인 대상 교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BK21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공학전문인력 배출 및 연구에 약진

이 모두 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교수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수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왔던 기술개발과 그 이후의 과정을 산학협력단이 맡아 처리해 줄 것으로, 교내 구성원들이 호응만 해준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학교의 수익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A 물론이다. 그러나 단순한 수익사업과 다른 점은 산학협력의 초점이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과 교내 연구 역량의 제고에 모아진다는 것이다.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수익과 로열티 수입 등은 새로운 산학 협력을 위해 재투자됨으로써 첨단의 학문적 성과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화, 고시계의 강자로 자리 굳혀



지난 1월 12일 경영관 홀에서 이대법조인회 정기 총회가 열려 유후정 재단이사장, 신인령 총장, 양명조 법대학장, 박양덕 이영희 고문, 이양자 법대 동창회장을 비롯해 본교 출신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 28명의 축하 모임에 걸었던 이날 총회에서 신인령 총장은 "이화 법조인 2백명 시대가 멀지 않았다"며 합격자들을 격려했다. 합격자 전원이 개인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고시 준비의 어려움과 생생한 기쁨의 표현들이 쏟아졌다. 기념 촬영전, 유후정 이사장은 새내기 법조인들을 위해 준비한 금일봉을 일일이 손에 쥐어주며 이화가 키운 특별한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활약을 당부했다.

27명, SBS 14명, EBS 6명, 조선일보 10명, 중앙일보 6명, 동아일보 3명, 한겨레신문 16명이 현직으로 활동 중이다.

공인회계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 시험 역시 이화인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 지난

사법 고시, 행정고시 등 2003년도 주요 국가고시를 비롯, 언론 고시라 불리는 언론사 공채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이화인들이 합격, 고시계의 강자로서 본교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지난해 행정, 사시, 언론사 공채,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각종 시험을 통과해 전문직종에 진출한 이화인들은 1백1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03년 제47회 행정고등고시 최종 합격자중 본교 출신은 총 16명(일반 행정직 12명, 재경직 3명, 교육행정직 1명)이다. 2002년에도 18명이 합격, 이화 출신 행정인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다. 본교 출신 첫 행정인은 81년에 합격한 장우주(법학 81년 졸) 현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국장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03년 제45회 사법 시험에는 총 28명의 본교 출신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별 순위에서 본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이어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격자의 전공은 법학과 26명, 사학과 1명, 영어영문과 1명으로 법학과의 압도적이었으며 입학년도는 82학년부터 99학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출신의 법조인은 전효숙(법학 73년 졸)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5년 사법시험을 첫 통과한 이래 2003년도 합격자를 포함해 총 172명에 이른다.

대표적 전문직종인 언론계에도 이화인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국내 주요 언론사 2004년도 신입사원 공채에 총 17명(기자직 9명, PD직 6명, 앵커직 1명, 방송사 행정직 1명)이 합격하는 개가를 올린 것. 이화 출신 언론인은 모두 3백여명으로 1997년 결성된 '이화언론인클럽'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중 2003년 말 현재, KBS 42명, MBC

해 9월 2003년 38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경영학과 출신 15명을 포함, 41명의 이화인이 합격했다. 1981년 첫 합격자인 노석미(경영 80년 졸) 동문을 필두로 총 161명이 '이화회계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전문직종인 변리사 분야에도 이화인이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제40회 변리사 시험에서 총 8명(이공계 7명, 인문계 1명)의 이화인이 합격했다. 본교 출신의 첫 변리사는 89년에 합격한 이정순(제약 85년 졸)동문이며, 2001년 38회 시험에서는 장수영(제약 99년 졸) 동문이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총 57명의 이화인이 '이화특허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본교 교수들의 특허출원을 위한 연계를 모색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제4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 〈일반행정〉 김문실(법학 94졸), 이은영(법학 96졸), 김태경(행정 98졸), 황경임(행정 98졸), 김민정(정의 01졸), 김민지(행정 01졸), 안민선(행정 4재), 조선경(행정 4재), 박민정(행정 4재), 오종희(행정 4재), 김현주(정의 98졸), 양혜원(영문 00졸)
- 〈재경〉 박애서(영문 01졸), 박선정(정의 01졸), 양소영(법학 4재)
- 〈교육행정〉 강현선(행정 3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

- 김영미(법학 86졸), 신재은(사학 95졸), 정선아(법학 97졸), 신승희(법학 99졸), 김민아(법학 98졸), 김선영(법학 98졸), 정가진(법학 98졸), 박은혜(법학 00졸), 박주미(법학 99졸), 송정은(법학 99졸), 황진희(법학 99졸), 김은하(법학 00졸), 박지영(법학 02졸), 정혜진(법학 01졸), 최연미(법학 00졸), 김경선(법학 01졸), 우수연(법학 01졸), 이정민(법학 01졸), 장서연(법학 4재), 허유경(법학 00졸), 김은교(영문 4재), 김효진(법학 4재), 송영인(법학 4재), 윤나라(법학 4재), 차주희(법학 4재), 최현미(법학 01졸), 허미숙(법학 4재), 한예리(법학 4재)

제40회 변리사 합격자

- 김선미(정보통신 4재), 김지원(화학 92졸), 박상미(물리 4재), 신민영(화학 03졸), 심정희(화학 96졸), 이지은(물리 02졸), 홍미리(정외 93졸), 황혜영(물리 00졸)

제38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 안세진(독문 96졸), 홍지은(독문 01졸), 장혜진(법학 91졸), 박태영(법학 98졸), 채지현(행정 99졸), 김연경(문헌정보

- 97졸), 이현경(경영 95졸), 김수인(경영 98졸), 강지윤(경영 99졸), 김상미(경영 99졸), 김희선(경영 00졸), 이태연(경영 00졸), 조현숙(경영 00졸), 이지영(경영 01졸), 조은아(경영 01졸), 장연주(경영 01졸), 조수민(경영 01졸), 조민희(경영 01졸), 박민정(경영 02졸), 서수현(경영 4재), 윤안나(경영 4재), 정은경(경제 01졸), 박미나(경제 03졸), 오은영(경제 4재), 추현욱(경제 4재), 김문정(통계 96졸), 김지현(통계 02졸), 이상미(통계 01졸), 이은주(통계 02졸), 조성은(통계 02졸), 허의진(통계 02졸), 김운전(통계 03졸), 김정미(통계 03졸), 김희경(통계 03졸), 박경애(통계 03졸), 강석민(통계 4재), 전은영(화학 94졸), 윤선(화학 96졸), 송미혜(수학 01졸), 김명선(수학 02졸), 정지연(의직 4재),

주요 언론사 2004년 공채 합격자

- 조선일보 : 이지혜 (계약 96졸), 안상미 (언홍영 4재)
- 동아일보 : 신수정 (영문 4재)
- 한겨레신문 : 유선희 (언홍영 02졸)
- 연합뉴스 : 안인용 (독문 03졸)
- YTN : 〈기자직〉 전가영 (언홍영 03졸), 〈앵커직〉 김선영 (물문 03졸)
- KBS : 〈TV PD직〉 이지혜 (언홍영 03졸), 손지원 (국문 03졸), 윤고운 (영문 03졸) 〈Radio PD직〉 최승화 (심리 03졸) 〈기자직〉 우수경 (언홍영 4재), 이하경 (정의 03졸)
- MBC : 〈TV PD직〉 김보슬 (언홍영, 정의 01졸), 〈기자직〉 장미일 (영문 02졸) 〈방송경영직〉 한소희 (경영 4재)
- SBS : 〈TV PD직〉 권애리 (영문 03졸)

이화소식

“출판부는 이미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출판부장 김용숙 교수

“대학 출판부는 책을 만들어 내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한 사회의 지식 정보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 출판부답게 이대 출판부는 기존의 단행본, 교재 편찬 외에도 한국의 지식 사회를 이끄는 대형 기획물들을 내용을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대학 소속 출판부에서 별도의 사업자로 독립, 사업 영역을 활발히 넓혀가고 있는 본교 출판부장 김용숙 교수(불문). 무엇보다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 출판사를 더 선호해 온 교내 교수진들을 출판부의 필진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을 큰 수확으로 꼽는다.

“우선 외부 출판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황금 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출판 기획전문가와 편집 디자이너를 영입했고, ‘이대 출판부’라는 명칭 외에 문예도서를 전문 발행하는 ‘달빛’을 별도의 브랜드로 만들어, ‘연애의 증거’, ‘스물한편의 연애편지’ 등 세계의 연서를 펴냈다. 또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포함, 출판부의 홈페이지를 국·영문 두 가지로 개편중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해외 출판시장 진출도 가능해 진다는 것.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는 본교 교수의 저술 지원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그는 만족스러워 한다. 총 37권의 단행본이 나왔으며 이중 ‘우리 옷의 전통 양식’(이경자 저), ‘현대 건축과 뉴 휴머니즘’(임석재 저), ‘박교수의 환경 만화’(박석순 저), ‘고구려사’(신형식 저) 등

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여성 신학 사전’(황애경 역)과 곧 출간될 ‘동시통역 기초사전’(이진영 저) 등 2권의 사전 편찬 또한 본교 출판부의 축적된 역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역저였다.

직원 사무실 방향으로 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는 김용숙 부장은 올해에는 50여 단행본 외에 우리 문화를 출판으로 집대성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대전에 출품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50종 시리즈가 바로 그것.

“우리 문화에 대한 학술적 깊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진 반, 글 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선화, 정하영, 조동일, 홍선표, 황병기 등 국내 최고의 필진도 확보되어 있지요. 국제 시장에 내용을 시리즈인 만큼 영문판을 함께 발행,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지식 정보를 보급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대학 출판부는 그 구성원들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많이 벌어서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이화 동문 첫 자매 법조인

“언니는 내 인생의 앞길을 밝혀준 멘토”

최현희(법학 92년 졸) 변호사와 새내기 법조인 최현미(법학 01년 졸)



새내기 법조인 최현미 씨(왼쪽)와 최현희 변호사

“현미가 강이 좀 세요. 그래서인지 큰 시험에 강하더라고요. 남들 죽어라 공부해서 가는 외고도 딱 한 달 공부하고 붙었거든요.” 최현희 변호사의 동생 칭찬이 줄을 잇는다. 현미 씨도 언니에 대한 고마움부터 표했다. “언니는 정말 낙천적이예요. 시험 준비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너만 힘든 게 아니니 걱정 말아라’며 다독여주는 언니 덕에 힘든 시기를 넘겼던 것 같아요.”

최현희(법학 92년 졸) 변호사와 최현미(법학 01년 졸) 동문은 이화가 배출한 첫 자매 법조인이다. 둘

다 법학과와 스포츠클럽 동문이자 멘토와 멘티의 관계다.

최현희 변호사는 법학과에 입학한 88년부터 꾸준히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95년에 꿈을 이뤘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자마자 이화외고 입학의 위해 상경한 동생 현미 씨에게 정래 이대 법대에 진학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현미 씨의 꿈은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는 외교관. 하지만 언니 현희 씨와 언니의 학교

동기들, 선배들과 만나며 그녀의 꿈도 자연스럽게 법조인으로 바뀌었다.

“현미가 대학 입학원서 쓸 때 무조건 이대 법대를 쓰라고 했죠. 법조인은 여성이 갖기에 최적의 직업이기도 하고 이를 준비하기에 이화여대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 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미 씨가 언니이자, 학교 선배, 여성 법조인 선배인 최현희 변호사로부터 받은 지원은 그리 특별한 것은 없다. 가족과 함께 스포츠클럽으로 찾아와 준 것이 전부. 한 번은 스포츠클럽 점호시간이 지나 찾

아와 가까스로 유리문을 사이에 둔 채 얼굴을 보고 간 적도 있다.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워낙 결과를 점치기 힘든 시험이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죠.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실없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우리가 판사가 되는 게 빠를 것이냐, 아니면 판사 남편을 얻는 게 빠를 것이냐, 뭐 그런 류요.”

4학년 2학기에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2년 반 만에 합격한 현미 씨의 꿈은 판사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검사, 변호사 업무도 두루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법조계, 특히 검사 업무는 비여성적 성향이 강해 힘든 점도 많습니니다. 하지만 일종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이라는 점에서 여성에게 좋은 직업이예요. 조직 자체가 남녀의 성별보다는 능력으로 인정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많은 동문들이 법조계로 진출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최현희 변호사는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법조계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격려도 빼놓지 않았다.

특정영역우수자 특별전형으로 우수신입생 선발

본교 2004학년도 입학 전형 결과, 수시1학기모집에서는 10.07:1, 수시2학기모집은 7.25:1, 정시모집에서는 3.2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처음 신설된 수시1학기모집의 특정영역 우수자 특별전형은 경쟁률이 8.37:1로써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계없이 외국어와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고자 한 특정영역 우수자 특별전형은 외국어 뿐 아니라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우수한 여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본교의 이공계열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이윤진(자연과학부, 서울과

학교등학교 조기졸업예정)은 세계적인 화학자로 성장할 역량이 충분한 학생으로서 본교의 21세기 지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특정영역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은하(생활환경학부, 대전외고 졸업예정)는 서울대 주최 외국어경시대회에서 금상과 프랑스대사상을 받는 두각을 나타내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신입생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혜승(자연과학부,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예정)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는 등, 본교의 이공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학생이다.

56명의 국제학부 신입생을 선발한 국제학 전문인 특별전형은 100%의 등록률을 보임

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국제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인도네시아인 리카(Rika) 양은 국제학우수장학생으로 향후 제3세계 국제교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촉망되는 인재이다.

또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의 초등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등은 지원율과 입학성적점수 면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 진출이 용이한 전문직 전공에 대한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총 3,587명의 새내기들을 위한 입학식은 2004년 2월27일(금) 대강당에서 열린다.

기
관
소
식

분자생명과학부가 개발한 유전자 모델 세계적 게놈정보센터 UCSC의 유전자 모델로 선정



분자 생명과학부 이상혁 교수(사진)의 생물정보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유전자 모델(ECgene)이 세계적인 게놈정보센터인 UCSC(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가 제공하는 유전자 모델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ECgene 유전자 모델은 게놈 지도와 공개된 서열 500만개 이상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유전자의 일부가 손실되거나 바뀌는 유전자 변이를 밝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ECgene 유전자의 발현과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정보학적 툴도 함께 개발돼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발현과 기능의 변화 및 이들의 질병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Cgene을 유전자 모델로 선정할 UCSC 게놈정보센터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유럽 바이오택정보센터(EBI)와 함께 세계 3대 게놈정보센터로 꼽히는 곳이다. 생물정보학연구실 홈페이지(<http://genome.ewha.ac.kr/ECgene>)에서는 사람, 생쥐, 집쥐에 대한 최신 유전자 지도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정보학 연구실 연구원들



인문학연구원 '도깨비' 연구, 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받아

인문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 도깨비 캐릭터 이미지 콘텐츠 개발과 시나리오 제재 유형 개발' 프로젝트가 문화콘텐츠진흥원 공모에 입상해 총 4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문화 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도깨비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우리의 도깨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오니(도깨비, 귀신)'를 변형시켜 만든 국적불명의 도깨비 캐릭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익살스럽고 정감있는 우리 고유의 도깨비 캐릭터를 복원, 디지털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위상 설립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여성신학교육 제3학기 대학교회에서 열려

여성신학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일(월)부터 10일(수)까지 열흘간 아시아여성신학교육 제3학기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에는 인도, 필리핀,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15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NGO활동을 펼치고 있는 10여명의 활동가가 참가해 강의와 현장 학습 워크숍을 가졌다.

'아시아 기독교인 윤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세계화와 빈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 기술정보시대와 환경에 대해 아시아 여성의 시각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학기에는 인도 Grukul Lutheran Theological Seminary의 Monica Melanchthone 교수와 본교의 정희성 교수, 백은미 교수, 이영미 박사, 장운해 박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신인령 총장이 서대문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장학성금을 관련기관들에게 전달했다.

학생 처(처장 김현숙 교수)가 주관한 제3회 이화인 건기 대회에서 모인 1천9백만원의 성금이 서대문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 60명에게 장학성금으로 전달되었다.

지난해 12월22일(월) 본관 101호에서 있었던 장학성금 전달식(사진)에서 신인령 총장은 서대문구 우대영 부구청장, 이대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김규한 교장, 이대부속이화금란중학교 조경원 교장,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목사를 통해 각 기관의 추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성금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이화인 건기 대회에 참가했던 교직원, 재학생과 동창, 초·중·고등학생들이 낸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본교는 매년 연말 서대문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까지 총1백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화·한택자연사박물관 공동 설립하기로

무궁무진한 생태계를 체험하는 자연교육장

196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본교 자연사박물관이 생태계 체험 학습장을 마련한다. 국내외 동·식물과 광물 및 암석, 화석 연구와 전시를 통한 자연사 교육을 펼치고 있는 본교 자연사박물관이 국내 최대의 사립 식물원인 한택식물원과 손잡고 ‘이화·한택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29일(목) 본관 101호에서 신인령 총장, 이남숙 자연과학대학장, 김문현 교무처장, 정하영 기획처장, 송준임 자연사박물관장과 한택식물원의 이택주 원장, 강정화 식물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2006년에 개관할 이화·한택자연사박물관은 각종 표본과 자료들을 모아둔 상설 전시관, 기획전시관 및 자연학습 교실, 아동도서 및 활동실 등을 갖춰 1천평 규모로 경기도 용인시의 한택식물원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개관 후에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 체험 및 견학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살아있는 친자연화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생활을 둘러싼 생태계를 생생히 전해줄 상설 전시에는 본교에 소장된 4천점의 동·식물 및 고생물 표본이 제공된다. 그리고 본교 자연사박물관이 개최했던 기획전에서 전시되었던 800여점도 다시 선보이게 된다. 또한 본교의 식·동물 연구 인력들이 파견되어 한택식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야생식물들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 다양한 품종 개발 및, 복원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택주 한택식물원장이 신인령총장에게 꽃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재일동포 청년의 전문직 취업 지원하는

‘제3기 재일동포청년 IT 국내 직업연수’

지난 해 12월15일, 본교 정보통신연구소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제3기 재일동포청년 IT 국내 직업연수’ 입학식(사진)이 거행됐다.

본 과정에는 27명의 재일동포 청년들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6개월간 IT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일본 내에서 주류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동포 청년들의 전문직 취업의 활로를 모색, 재일 한국인의 일본 내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학생들과 주관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이광규 이사장, 스기야마 신스케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조동섭 정보통신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성 리더를 키우는 힘, 이화리더십개발원 2기생 모집

지난해 9월 개원, 여성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현장과 연구를 연결시킨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조형 교수)이 2기생을 모집한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지난 1기 교육과정을 통해 정치과정 수료생 30명과 기업과정 수료생 25명을 배출해 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2기 과정에서는 '기업여성리더십과정', '공직여성리더십과정', 'NPO(Non Profit Organization)여성리더십과정'의 3개 과정을 개설, 각 기업, 정부기관, 시민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과정에는 지난 1기 과정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국내 주요 대기업

들이 회사 차원에서 2기 수강생을 다시 파견할 예정이며, 공직 과정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민간교육기관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NPO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요 시민단체에서 NPO 과정에 많은 수강생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과정은 3월 둘째 주부터 15주간 진행되며 수업 외에 워크숍과 포럼 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며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수강료의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수강 신청은 1월12일부터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이화리더십개발원 홈페이지(www.ewhaleadership.net)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각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다.

2003 이화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국경없는 잔치' 로 과시한 세계속의 이화



"Hello, Mr. Ewha" 본교 최초의 Mr. Ewha에 도전한 남자 교환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국제교육원이 지난해 11월13일 국제교육관에서 '2003 이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2003 Ewha International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경 없는 잔치로 흥겹게 진행된 이 행사에는 세계 주요 7개국 대사관과 문화원 담당자들이 직접 유학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본교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설명회가 준비되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함께 열린 교환학교 박람회에서는 본교에 수학 온 외국인 교환학생과 자매학교에 파견되었던 본교 학생이 함께 부스를 만들어 생생한 현지 유학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교환학교 박람회에 참가한 자매학교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프랑스 제 3대학 등 각국의 40여개 대학으로 각 부스마다 각 나라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맛대결'도 함께 펼쳐졌다. 이 날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안산 외국인 노동센터에 기부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졌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였던 'Mr.Ewha선발대회'는 자매학교에서 파견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벤트로 참가자의 장기자랑과 출신 학교의 응원공연을 본 본교생을 비롯한 관객들의 투표로 입상자가 결정됐다.

초대 'Mr.Ewha'의 영광은 참가자 9명 중 하버드대학에서 온 중국계 미국인 빅터 밴(23, 하버드대 역사학 전공)에게 돌아갔다. 장기자랑으로 복화술 정치공트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은 빅터는 수상 소감에서 "한국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출전했는데 뜻밖의 큰 상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본교에서는 연간 200여명 규모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학생들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장애우의 정보격차 해소 위한 '사랑의 PC' 기증



지난 1월28일, 총무처장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펜티엄 3급 PC 200대를 기증하는 기증식(사진)이 열렸다.

본교의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개방실습실 PC 교

체작업이 완료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됐던 PC 200대를 '사랑의 PC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정부부처와 관공서, 기업, 개인으로부터 중고 PC를 기증받아 수리해, 매년 1,000 여대의 중고PC를 장애우들에게 보급해 오고 있다.

사랑의 후원사업에 동참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결손가정의 소년소녀 가장과 소아암환자를 돕는 후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3년도에는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43명의 후원인들이 조성한 700여 만원의 후원금과 더불어 노동조합에서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으로 1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매달 5만원씩 생활보조비를, 한국어린이백혈병재단에 매달 2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했다.

노동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후원사업은 1구좌(5천원)에서 10구좌(5만원)까지 가능하며 후원을 하게 될 경우 후원금은 매달 급료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문의: 구내전화 3391

공지사항

정책과학대학원 교학부 이전
정책과학대학원 교학부가 1월29일자로 학관 106호에서 이화-포스코관 761호로 이전했다.

신규임용



유혜련 씨

송원자 씨

2003년 11월 1일자로 유혜련씨와 송원자씨가 기획과에 신규 임용되었다.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받은 이혜숙교수

여학생-여성과학자 맺어주기에서 과학 엄마 교육까지



WISE(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거점센터 소장으로 이공계 여학생과 현장의 여성과학자 맺어주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이혜숙교수(수학)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8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았다.

그동안 맺어준 여학생-여성 과학자 커플이 1백80여쌍에 이른다. 이 교수는 최근 또 하나의 큰 일을 벌이고 있다. 대여섯명의 엄마들을 하나의 모듬으로 묶어 과학 및 수학을 가르치는 ‘wise mom 수학 과학 실험 아카데미’ 가 그것.

지난해 11월29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초등생을 둔 4~5명의 전업주부 혹은 직장여성이 지역에서 공동교육 모듬을 만들어 회원들이 돌아가며 아카데미에서 실험교육을 받은 뒤 자기 모듬으로 돌아가 이를 다시 교육하는 이른바 ‘폼앗이 교육 시스템’이다. “참가한 엄마들이 계속 자기가 교육 담당을 하고 싶다고 떼를 쓸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힌 이 교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여성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며 끊임없는 열정을 과시한다.



에델투르드 김교수(독문)가 지난해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 1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에서 번역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본교 독문과 출신 전문번역가 김선희씨와 공동번역한 ‘Vogel’(원작 오정희씨의 ‘새’)이며, 상금은 3천만원이다. 대산문학상은 시·소설·평론·희곡·번역 등 5개 분야에서 최근 2년간 발표된 작품 가운데 선정된다.



김우식교수(사회)가 지난해 12월 12일에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제4회 한국사회학회 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구조적 신호 읽기 : 연결망 구조와 규칙 위반 행위의 조용 방식’이다.



김영희교수(무용)가 지난해 12월말, 한국춤평론가회가 수여하는 2003년 춤비평가상을 받았다. 김교수는 지난해 6월26일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 ‘내안의 내가’를 통해 조명, 음악, 움직임의 결합한 이미지 댄스 작업으로 무용예술의 표현영역을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수동정

스위스 연방 공대와 공동연구 진행하는 김명희교수



김명희교수(컴퓨터)가 소장으로 있는 본교 컴퓨터 그래픽스·가상현실 연구 센터(CCGVR)가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으로 평가받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urich)의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소(CGL)와 올1월부터 4년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연구 주제는 ‘비디오에 기반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Video Based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 연구를 위해 양 연구소는 4년간 학생과 연구진을 교환할 계획이며 특히 본교 컴퓨터 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가 스위스 연방공과대에 분원을 설치, 그간 연구해온 ‘사용자의 실제 이미지를 갖는 아바타가 공유 가상현실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연구 역량을 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홍남교수(미술사)가 지난해 10월6일 국립민속 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김교수는 1995년부터 6년간 본교 박물관장을 지냈다.



김석준교수(행정)가 지난해 12월13일 이화포스코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3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송희준교수(행정)가 지난해 12월 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아영교수(심리)가 지난해 12월13일 한국교육심리학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한국교육심리학회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며,

임기는 2005년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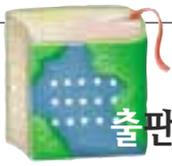
김규한교수(과학교육·부속이화급관고교 교장)가 1월초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신입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명교수(보건교육)가 지난해 11월28일 서교호텔에서 열린 2003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김교수는 앞으로 3년간 협회 이사를 맡는다.



황헤진 교수(비서)가 국제회의 기획운영센터를 운영하며 국제회의와 문화 교류 행사의 기획 및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행사로 지난해 11월 14일에 미국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의 공동 후원으로 ‘미국의 비즈니스와 문화이해’를 개최했다.



출판부 새책

현대 건축과 뉴 휴머니즘 | 임석재 지음

이 책은 전통을 재해석함과 동시에, 일상의 평범한 주변에서도 우리 건축 현실에 적용할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건축에서의 '뉴 휴머니즘', 기계 물질 문명과 산업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된 인간성을 우리의 건축 환경에서 되살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뉴 휴머니즘은 적극적인 창조 운동이 아니라 소극적 되찾기 운동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뉴 휴머니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가능성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만5천원>

기독교와 이슬람 | 전재욱 지음

이 책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지 하는지를 말한다. 먼저 예수의 선교 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예수의 선교에 깊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복하거나 내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슬람권을 '문제 지역'으로 보는 선교 의식은 극복되는 것이다. 선교 신학적 관점을 넘어, 타문화로서의 이슬람을 만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책이다.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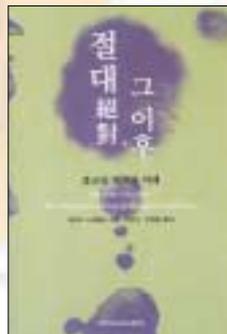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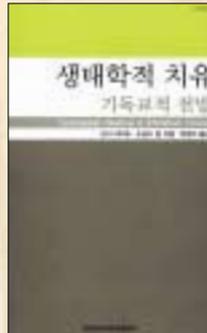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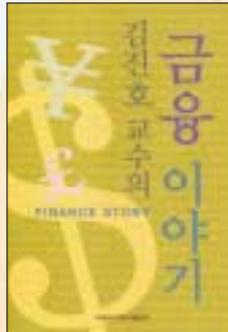
김진호 교수의 금융 이야기 |

김진호 지음

많은 사람들이 금융 전반에 대해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막상 금융 현상에 당면했을 때는 능숙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상적인 교재와는 반대의 순서를 취해 일종의 금융 사례 연구의 형식을 띠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사례들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금융의 주요 장면들을 다루었다. 칼럼 하나하나로서는 당시의 금융 현상을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독립적 역할을 하고, 43편의 칼럼 전체는 금융 교육을 위한 제반 학문 분야를 포괄하도록 구성되었다. <1만원>

생태학적 치유 | 낸시 라이트·도널드 킬 지음, 박경미 옮김

이 책은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 위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생태 위기의 문제를 세계 도처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문제와 결부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



스도인의 자세로, 인류가 먼 미래까지 이 지구에서 평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저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1만원>

국경 없는 노동자 | 피터 스타커 지음, 최수연 옮김

이 책은 21세기에는 더욱 증가될 노동력 이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문제를 살피고, 국제 이주에 관한 최근의 정보와 함께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독특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피터 스타커가 쓰고 ILO가 펴낸 이 책은 노동의 이주에 대한 전망과 국제사회를 위해 제기될 문제들을 경고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미래의 이주체제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는가를 밝혀 주며, 한편 이주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8천원>

절대, 그 이후 - 종교간 대화의 미래 | 레너드 스위들러 지음, 이찬수·유정원 옮김

이 책은 근본적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에 주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 즉 대화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 대화적 사유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로 그러한 방식을 받아들이고 진작시키는 데 앞장서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다. 대화는 전 인류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길인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들이 현대 사회 안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폐위시켜 온, 절대적인 것을 넘어선(beyond the absolute) 사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만8천원>

사랑의 글 모음 <프랑스편>

'스물 한 편의 연애편지' | 조윤경 편역

사랑의 글 모음 <독일편>

'연애의 증거' | 김수연 편역

축망받는 젊은 불문학자와 독문학자가 대문호들과 연인들이 주고받은 사랑의 글들을 모아 펴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사랑의 감정들을 당대의 문장가들답게 아름답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낸 '연애편지의 고전'이다. 이 연애편지들과 더불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위고, 스탕달, 엘뤼아르, 발자크, 플로베르, 보들레르 등의 프랑스 작가들과 카프카, 릴케, 니체, 실러, 괴테 등의 독일 작가들의 열정적인 연애 감정과 그 뒷이야기를 만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 한국편, 미국편, 영국편, 중국편 등이 나올 예정이다. <7천원·8천5백원>

2003년 '이화인의밤' 열려

초겨울밤을 장식한 흥겨운 축제 한마당



2003년도 '이화인의 밤' 행사가 1천4백여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사진).

총동창회 부회장인 조계숙 교수(비서)의 사회로 막이 열린 '이화인의 밤'은 제1부

만남, 제2부 만찬에 이어 인기가수 강성훈·조관우와 함께 한 제3부 공연순서, 제4부 행운잔치까지 3시간 넘게 뜨거운 열기속에 이어졌다.

신인령 총장은 제1부 만남에서 금혼학칙 폐지, 재학생들의 전문직종 진출을 지원하는 경력개발센터 및 한국 여성 리더들을 분야별로 육성하는 이화리더십개발원의 신설 등 교내 소식을 전하고 올 5월에 마무리되는 정문앞 철도 복개공사 현황, 운동장과 이화광장 지하를 연결하는 2만평의 이화캠퍼스센터 신축계획을 소개했다. 신총장은 "이화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동창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이화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화인의 밤' 행사를 마친한 총동창회 윤순희회장은 행사 수익금 1억원을 신인령총장에게 장학금으로 기탁했으며 거제도 소재 정신지체아 수용시설인 애광원 원장 김임순동문에게 사랑나누기 기금과 배내장 무료시술권을 전달했다. 이날 이회호 전 영부인은 장학금으로 금일봉을 보내오기도 했다.

서지희 동문(경영 85년졸)



지난해 11월 열린 삼정회계법인 사원총회에서 회계사의 꽃으로 불리는 파트너로 선임됐다. 삼정회계법인 상무로 근무중인 서동문은

삼정, 삼일, 영화, 안건, 안진 등 국내 5대 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2백10명중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으로 본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여성 1호' 기록에 또하나의 소중한 분야를 보태게 됐다.

이미경 동문(영문 73년졸)



1월11일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장선출 전당대회에서 상임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20여년간의

여성운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 15,16대 의원을 거쳤다.

박정란 동문(국문 63년졸)



KBS 인기 드라마 '노란 손수건'을 집필,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사회 이슈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여성부 주최 제5회 남녀평등방송상 대상을 받았다.

장석희 동문(경영 77년졸)



본교 경영학과 동창회가 주관하는 2003년 '자랑스런 이화 경영인'에 선정되어 지난 11월에 수상했다.

장동문은 시티은행 인터넷 뱅킹 스위핑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박선이 동문(영문 84년졸)



1월 2일 조선일보 문화 부장에 부임했다. 박동문은 83년 문화부 기자로 입사, 차장과 부장 대우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논설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조선일보 여기자 중 공채기사에서 부장까지 승진한 경우로는 최초이다.

동문동성

정연희 동문(국문 58년졸)



1월초 열린 한국소설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본교 국문과 재학중이던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난지도' '석녀' 등 많은 작품을 썼으며 한국소설가협회상, 한국문학작가상, 대한민국 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배수아 동문(화학 88년졸)



1월초 장편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내놓아 문단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관습과 통념을

거스르는 낮은 소설 문법으로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배동문은 이번 소설을 "가능하다면 다른 것을 쓰되 사람들이 그것을 소설이라 불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형태를 원했다"고 자평했다. 2003년말 한국일보 문학상도 받았다.

유성희 동문(언홍영 91년졸)



1월9일, 전국 55개 조직에 회원 8만여명, 실무간사만 1천명이 넘는 거대 여성단체 YWCA(대한여자 기독교청년회)의 새 사무총

장으로 취임했다.

유동문의 취임은 50~60대 중심의 YWCA 지도부가 30대 중반으로 대폭 젊어졌다는 점 외에도 이회호, 박영숙, 장상, 김숙희 등 본교 출신 사무총장들의 맥을 잇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감사합니다

조흥은행 발전기금으로 30억원 약정

본교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대표 최동수)은 지난해 10월 총장실에서 94년부터 매년 보내오던 기금 2억원을 전 달하고, 12월에는 2004년부터 10년간 매년 3억원씩 총 3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화국제재단에서 보내온 발전기금

미국 뉴욕에 있는 이화국제재단에서는 매년 학교 발전기금을 보내오는데 지난해 11월에는 Dorothy Smith Estate Royalty(도서관 도서관구입비) \$15,577.86, Pfeiffer Fund(본관 유지보수비) \$30,000을 보내왔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와 18기 일동 장학금 · 탁아소 기금 기탁

본교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매년 장학금과 탁아소기금을 기탁하는데 2003년에도 총동창회가 10월에 개최한 바자회의 수익금 5천만원을 장학금으로, 12월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18기 일동이 탁아소기금 7천백여만원을 기탁했다.

본교 총동창회 1억5천만원 기탁

본교 총동창회(회장 윤순희)는 지난 11월 24일 힐튼 호텔에서 <이화인의 밤>을 개최하고 그 수익금 1억원과 12월말에 5천만원을 포함 총 1억5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보건교육과 동문들 전공 장학기금 조성

사범대학 보건교육과(학과장 문인옥 교수)는 2003년부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교육과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영문과 권경수 교수 약정 장학금 5천만원 기탁

권경수 교수(영문)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외협력처를 방문, 5천만원을 전달하여 영어영문학전공과 법학과 학생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모두 완납했다. 권경수 교수는 돌아가신 부친을 추모하여 2000년 11월에 '권중근 세자요한 장학금'으로 1억원을 약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학전공 졸업 예정자들이 장학금 모아

지난해 12월 본교 정보통신학전공 4학년 최아영 양은 동기 2명과 함께 대외협력처를 방문,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동기들과 뜻을 모아 후배를 위한 장학금으로 모았다며 55만원을 기탁했다.

발전기금 이문세 크리스마스 콘서트 후원을 위한 성황리에 열려

지난해 12월 23일(화)~25일(목), 본교 대강당에서 '발전기금 후원을 위한 이문세 크리스마스 콘서트' (사진)가 대외협력처 주최로 마련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수익금 2천5백만원과 공연기획사인 (주)좋은 콘서트에서 기부한 3천만원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대외협력처에서 운영하는 동창포탈사이트 이화인닷넷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 470여명이 새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동반으로 또는 동기들과 연말모임을 하는 동문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사범대와 간호대 건축 기금 조성

사범대학과 간호과학대학은 대학의 독립적인 교육공간인 교육관과 간호과학관을 건축하기 위한 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사범대학 교육관 건축기금 12억여원,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9억여원이 약정되었다.

건축 기금

이화캠퍼스센터 프로젝트 기금 참여도 활발

본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화캠퍼스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으로 목동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일동(간호부장 박정원)이 모두 4천5백여만원을, 성악과 교수 일동이 5천만원 등을 포함해 현재 1억여원이 약정되었다.

현물 기증

애정 담긴 현물 기증도 줄이어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하는 유증근 동문(영문 67년 졸)은 도서관에 의자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 중앙도서관에 천만원 상당의 의자 61석을 기증했다. 또한 조정현 교수(도자예술)는 도자예술전공 출신 도예작가들의 도예작품 16점을 대외협력처에 기증했다.

기타

삼성증권 2천7백여만원 한미은행 서교동지점 5천백여만원
전동원 교수(의류지물학) 천만원 최수향 천만원
성악과 교수 일동 5천만원 이세웅 2천만원
(주)녹십자피피엠(대표 조승태) 천백만원

장학금

김정옥 동문(독문 69년 졸) 5천5백만원
한인숙 교수(행정) 5천만원
최중희 동문(신문방송 84년 졸) 5천만원
최유리 교수(실용음악대학원) 5천만원
최승현 교수(건반악기) 5천만원
윤금희 교수(건반악기) 5천만원 채문경 교수(건반악기) 5천만원
김희성 교수(건반악기) 5천만원 박은혜 교수(작곡) 5천만원
곽은아 교수(한국음악과) 5천만원 김영주 동문(유아교육 71년 졸) 5천만원
박성연 교수(소비자인간발달) 천만원 이계우 교수(국제대학원) 5천만원
김수장 변호사(부인: 송영숙, 여성최고지도자과정15기) 5천만원
오기순(이영희 35기, 여성최고지도자과정 15기) 5천만원 뉴욕동창회 \$6,000
올랜도지회 \$1,000 미연합감리교세계선교부 \$647.57

법학과, 의학과에 1억원 기탁 - 김병순 여사



“돌아가신 이태영 선생님 덕분에 기부의 참뜻을 알게 되었지요.”

지난해 12월11일 신인령 총장에게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한 김병순(이영희 5기, 여성최고지도자과정 13기)씨. 일찌감치 결혼, 유복한 가정을 꾸리던 김씨는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이태영박사가 무료 탁아소를 해 보라, 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을

도와라, 식으로 자신의 관심을 밖으로 끌어내 남 돕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장학금 기탁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인데 여웃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모았다가 1999년 본교와 서울대에 각각 1억원씩을 기탁했다.

그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법조인과 의료인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무척 기쁘다는 김씨는 이번에 다시 1억원을 들고 본교를 찾았다. 이번에도 역시 가난한 법학과와 의학도를 돕고 싶다는 것. 70이 넘는 나이에 서울대 어린이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정년퇴임 전재옥 교수 '청화전재옥장학금' 기탁



지난해 11월18일 대학교회에서 정년퇴임 예배를 가졌던 전재옥교수(기독교)가 2001년 5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한데 지난해 11월 다시 5천만원을 추가, 모두 1억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청화전재옥장학금'으로 명명된 이 장학금은 신학 전공의 우수 학생을 지원, 여성 목회자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학대학원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본교 영문과와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거쳐 미국 플러신학대학에서 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교수는 오랫동안 파키스탄 선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졌으며 77년 3월부터 본교 기독교학전공 교수와 신학대학원장으로 후진을 양성해 왔다.

정년퇴임 기념으로 본교 출판부에서 '기독교와 이슬람-문화의 경계를 넘어 만난 이슬람'을 출간, 문화 종교계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장학금 기탁한
3인 인터뷰

법학과, 경영학과에 1억원 기탁 - 박찬옥 동문



“아이들 다 키워 놓고 모교의 여성지도자과정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다시 사회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찬옥 동문(약학 56년 졸업)은 지난해 12월19일 법학과와 경영학과 학생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신인령 총장에게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령교수가 들려준 “고급인력일수록

사회에서 받은 것이 많으니 이를 보답하기 위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늘으라”고 한 말이 늘 채찍질이 되었다는 것.

그가 학교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은 그러나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0년대초 약대 동창회장을 지내며 약대 신관건축 모금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모두 4억원의 돈을 모교에 기탁했다. “교정을 찾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박동문은 현재도 암웨이사업 등으로 ‘아름다운 후반기 인생’을 만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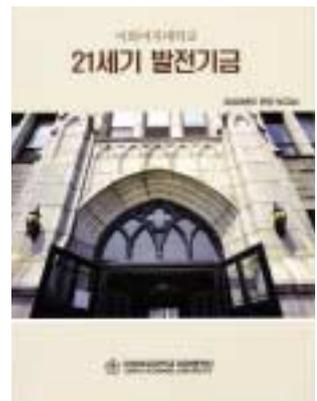
장학후원이사회 개최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는 지난해 12월12일 행정동에서 제3회 장학후원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의숙 장학후원이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경림 대외협력처장의 장학기금현황 및 보고가 있었으며 김정옥 동문(독문 69년졸)이 대표로 2003년 신규 장학후원이사에게 주는 장학후원이사 위촉장과 감사패를 받았다.

오찬을 겸한 이날 이사회에는 정의숙 장학후원이사회장, 윤후정 이사장, 신인령 총장과 장학후원이사 63명이 참석, 장학금 조성 확대와 장학금 지급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학후원이사회는 2001년 여성지도자 및 여성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장학금액 5천만원 이상 후원자를 장학후원이사로 위촉하고 매년 장학후원이사회를 개최하여 왔다. 장학후원이사는 2003년 신규 37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24명이다.

연간보고서 1호 발간

대외협력처의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어 교내 주요 기관 및 후원자들에게 배부됐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연간보고서에는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학교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후원자의 명단이 실려있다. 대외협력처 신설 1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전체 후원자 명단을 포함, 대외협력처 10년사를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동대문 병원 병실 새 단장 대학 병원 첫 인공관절센터 개설



동대문병원(원장 연구월 교수)이 병원 활성화 및 전문특화진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1일 인공관절센터(사진)를 개설한 데 이어 병동을 새롭게 단장, 25병상을 증설하는 등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 대학병원 내 인공관절센터 개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화된 독립적인 센터와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의료진으로 우리나라 인공관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유명한 김영후 교수와 김준식 교수를 초빙함으로써 인공관절 분야를 선도함은 물론 고관절 및 슬관절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센터내에는 외래진료실 4실, PACS를 겸비한 방사선촬영실, 골다공증검사실, 물리치료실, 연구실, 세미나실, 기록관리실 및 홀 등이 들어섰으며 인공관절 전용수술실을 신설, 수술실 3실, 회복실, 소독실을 비롯하여 최첨단의 수술장비를 갖추고 있다.

인공관절센터 오픈과 함께 이루어진 병상 증설을 위해 그간

목동병원 'PET' 도입, 본격 가동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각종 암진단 및 뇌신경질환, 심질환 등 다방면 활용



목동병원(원장 박영요 교수)은 암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기)를 지난해 12월19일 도입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사진). 자기공명촬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보다 질병 진단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이 기계는 질병의 조기진단은 물론 암세포가 어느 부위까지 퍼졌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PET는 각종 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노인성치매, 운동장애 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목동병원에는 방사선과에 최첨단 '16 슬라이스CT'를 비롯해 이번 PET도입 등 첨단진단장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병원 규모에 따른 첨단진료시스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잠정 폐쇄중이던 12층병동을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신관 10층, 9층, 7층 병동의 병실을 개조하여 총 25병상을 증설했다.



동정

연구월 동대문병원장, 한국여성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연구월 동대문병원장(한국여성정신의학회 회장)은 지난해 11월22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 연구소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2003년 한국여성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본교 의대 정신과의 우형원교수가 좌장으로 김선아, 박현주(분당제생 정신과), 장인경(한림대 한강성심 내분비내과), 박성혜(서울대 병리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김동순(동북신경정신과) 좌장에 의해 김경진(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성주명·문영철 교수,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지난해 10월25일에 열린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본교 의대 성주명, 문영철 교수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AML-임상시



성주명 교수

문영철 교수

험 연구팀 논문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0년부터 이화

의료원이 주관, 전국 20개 이상의 주요 이식기관이 참여한 본 연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지침을 확립하고, 현재 시도되는 다양한 치료법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 연제는 'Interim Analysis of Multi-center AML Trial, "HOGS-2000" Based on Cytogenetics Risk'이다.

김명래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술발표회 개최



김명래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은 지난해 11월22일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서는 각 전공과별로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발표회 후에는 주철환 교수(연홍영)가 '대장급과 개그콘서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목동병원 무인수납시스템 전면가동식 열려

목동병원은 2002년 10월에 가동한 외래 무인수납시스템에 이어 입원 무인수납시스템을 개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병원로비에서 진행된 무인수납시스템 전면가동식(사진)에서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기계는 편리하긴 하지만 친절을 줄 수는 없다"면서 직원들의 변함없는 친절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영요 목동병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편리하지만 병원도 카드수수료가 절약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무인수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병원의 이번 무인수납시스템은 원터치 스크린 방식과 인터페이스를 크고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해 환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사용가능하다. 목동병원은 무인수납기 이용률을 높이고 환자 편의를 위해 도우미를 배치, 안내하고 있다.